

## ♡1 욕망과 충동

슬라보예 지젝(1949~)은 헤겔의 변증법, 마르크스의 정치론, 자크 라캉의 정신분석을 융합하여 할리우드 영화를 분석하고 대중문화를 정신분석으로 읽어내며 혁명을 사유하는 사상가다. 지젝은 “**욕망이 결코 직접적으로 ‘나의 것’이 아니며 언제나 타자의 욕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나는 어떤 대상을 타자에 의해 욕망되는 대상인 한에서만 욕망한다)**”고 설명한다. 사실 욕망은 결핍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인간의 욕망은 언제나 욕망에의 욕망이며, 타자의 욕망의 대상이고자 하는 욕망이다.**” 우리가 욕망할 때 왜 불안한지 냉정하게 살펴보자.

욕망의 물음-수수제끼는 궁극적으로 ‘나는 실제로 무엇을 원하지?’가 아니라 ‘**타자는 실제로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지? 하나의 사물로서 나 자신은 타자에 대해 무엇이지?이다**—타자의 욕망의 대상-원인으로서 나 자신(주체)은 과잉접근할 때 불안을 격발하는 그 대상이다. 다시 말해서 불안은 내가 타자에 의해 교환/사용되는 대상의 자리로 환원될 때 출현한다.

나의 욕망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타자를 매개로 생겨난다. 우린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게 된다. 내 욕망이지만 이미 거기엔 타자의 욕망과 타자의 시선에 들어 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욕망하고 손에 넣지만 그 무엇도 결코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진정으로 원하는 걸 얻는다고 하면 이상하게 두렵지 않은가? 욕망은 “**향유와의 조우의 연기**”를 욕망한다. “**욕망의 반성성의 기본 공식은 욕망 만족의 불가능성을 비-만족에 대한 욕망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다**”. 욕망은 자기 자신의 불만족을 끊임없이 욕망한다. 욕망하기를 욕망하는 것이 욕망이다. 욕망을 쫓다 보면 욕망의 실체를 알게 된다. “**욕망은 이 ce n'est pas ça[그게 아니야]에 의해 정의된다. 즉 그것의 가장 기본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그 자체를 비-만족의 상태 속에서 욕망으로서 유지하는 것이다.**”

충동은 욕망과 다르다. 향락은 단지 얻을 수 없다는 문제만 있지 않다. “**라캉이 보기에 향유가 안고 있는 문제는, 그것이 획득할 수 없는 것이고, 언제나-이미 상실되어 있으며, 영원히 우리의 손을 벗어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층 더 나아가, 우리는 결코 그것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의 얼룩이 영원토록 따라다닌다는 것이다**”. 그것이 뭐든 하는 순간 알 수 없는 향락이 생겨난다. “**우리의 행위들에는 언제나 향유의 얼룩이 동반된다.**” 만족을 위한 운동이 아닌데도 충동은 “**그 운동 자체를 만족의 얼룩을 가지고 더럽힌다**”. 욕망이 향유를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끝내 실패한다면 충동은 향락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충동이 가르쳐주는 바는, 우리가 **향유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건 향유는 그것에 달라붙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결코 그것을 제거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과의 인연을 끊으려는 우리의 가장 철저한 노력에서조차도 그것은 바로 그런 제거의 노력 자체를 물들일 것이다(자기 자신에 대한 채찍질을 즐기는 고행수도자처럼).

우린 평생의 반은 욕망이란 유령을 쫓고 나머지 반은 충동이란 괴물을 싸우며 산다. 특히 우린 육체의 쾌락을 억압하거나 포기하곤 하는데, 그런다고 향락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육체적 쾌락의 포기가 바로 그것 자체의 쾌락을 산출**”하게 된다. 나를 옥죄는 법의 행사에

쾌락이 느껴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금지의 활동 그 자체가 바로 그 자체의 쾌락을 제공한다.” 누군가 금욕하고 있다면 그는 그만한 쾌락을 누리는 것이다. 성생활의 일탈이나 죄를 고백하게 하는 가톨릭의 고해성사는 성을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백적 활동 그 자체가 성욕화되며, 그것 자체의 만족을 낳는다”**. “그리하여 핵심적 문제는 욕체의 부정이 욕체화된 부정으로, 즉 리비도적 자극의 억압이 바로 이 억압 행위로부터 리비도적 만족을 획득하는 것으로 변증법적으로 반전될 섭득한 가능성이다.”

요컨대 성욕을 혼욕하고 유제하는 담론에 대한 푸코의 설명이 고려하지 못하는 것은 권력 기제 그 자체가 성애화되는, 즉 그것이 ‘억압’하고자 하는 것에 의해 더럽혀지는 그 과정이다. 유혹과 싸우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유혹을 열거하고 범주화하는 금욕적인 기독교적 주체가 실제로는 자신이 싸우고 있는 그 대상을 증식시킨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오히려 요점은, 유혹에 저항하기 위해 채찍질하는 금욕적 수행자가 어떻게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바로 그 행위 속에서 성적 쾌락을 발견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다.

♡2 즐겨라, 이 시대의 초자아

우리 안엔 괴물 같은 뭔가가, 현실원칙의 요구들을 무시하는 무의식이 있다. “바로 그 처음부터 주체 안에 주체가 생활세계 맥락으로 완전히 포섭되는 것에 저항하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분열된 합리적 주체이다. “근원적으로 ‘탈구되어’ 있고 자신의 맥락화된 상황과 불일치하는 한”에서의 합리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무의식을 이루는 것 가운데 하나인 초자아는 역설을 품고 있다. “그 역설은 내가 자아 이상의 명령들을 따르면 따를수록 나는 더더욱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에 있다. 라캉의 요점은, 자아 이상의 요구를 따를 때 나는 죄를 짓고 있다—나의 근본적 환상적 ‘열정적 애착’을 배반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다.” 초자아는 우리가 잘못된 욕망을 정죄하거나 일탈을 꾸짖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날엔 “즐기라”고 명령한다. “쾌락의 추구에 실패할 때 그를 따라 다니는 죄책감”은 이 시대의 초자아를 보여준다. 무의식은 이미 특정한 금지와 명령으로 나를 지배하고 있다. “정신분석의 기본적 교훈은 무의식이 그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불법적인 ‘억압된’ 욕망들의 축재 蓄財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 법 그 자체**라는 것이다.” 오늘날처럼 모든 것이 가능하고 자유로워진 것처럼 보이는 현대사회에서도 우리들은 이상하게 질서에 무기력하게 사로잡힌 채 무덤덤해진다.

이 역설적 반전은 정신분석의 고유 주제이다. 정신분석은 당신이 즐기는 것을 금지하는 엄격하고 권위주의적인 아버지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즐기라고 명하는, 그리하여 당신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불능/불감증의 상태로 만드는 외설적 아버지를 다룬다. 무의식은 법에 대한 은밀한 저항이 아니다. 무의식은 금지의 법 그 자체이다.

요새 우린 즉각 만족과 쾌락추구에 애를 쓰지만 막상 실제로 엄청 강렬한 성 쾌락엔 흥미를 잃어간다. 이상한 일이다. “오늘날의 주체는 자신의 삶을 쾌락에 바치며 예비적 행위(조깅, 마사지, 선풍, 크림과 로션 바르기……)에 너무 몰두하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의 공식적 목표의 매력은 시들어 버리는 것이다.” 그렇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다. 다들 쾌락을 위해 헌신하는데도 “항구적 불안 속에서 그리고 궁극적 실패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다시 한번 초자아는 그 책무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다: ‘즐거라!’라는 직접적 명령은 위반의 공간을 유지시키는 명시적 금지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주체의 향유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는 방법이다. 여기서 배울 교훈은 사회적 금지들의 ‘억압적’ 연결망이 아니라 나르시시즘적인 ‘자기 배려’가 강렬한 성적 경험의 궁극적 적이라는 것이다. 성욕 너머의 새로운 개인 특유의 육체적 쾌락들을 추구하는 새로운 후-정신분석적 주체성의 유토피아는 그 정반대로 되돌아갔다. 우리가 그 대신 얻은 것은 무관심의 권태이다. 그리고 고통의 직접적 개입(사도마조히즘적 성행위)은 쾌락의 강렬한 경험을 위해 남아 있는 유일한 길인 것처럼 보인다.

자아실현도 기괴한 명령이 되어 우릴 괴롭힌다. ‘당신 자신이 되라’에 따라 남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진정한 내가 되는 순간 “당신이 주변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될 때 당신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순수하고 단순한 백치의 공백만 남게 된다는 역설과 마주하게 된다.”

### ♡3 정신분석의 윤리

무의식을 추적하다 보면 내 안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사물이 있음을 알게 된다. 내가 나를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다. 나는 내 안엔 내가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아 괴로운 주체다.

사물은 무의식보다 훨씬 더 ‘우리 자신’이며, 우리 자신의 접근불가능한 중핵이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의 환상적 핵심을 무대올리는, 곧바로 우리 자신 ‘인’ 타자성이다. (...) 바로 그 타자성 속에서 사물은 우리의 가장 내밀한 개인 특유의 변덕들에 복종하는 유령적 현상들을 생성한다. 줄을 당기는 꼭두각시 인형의 주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며, 우리의 심장부에 있는 ‘생각하는 사물’이다.

내가 못 누리는 향락을 저 ‘타자’들은 누리는 것처럼 보일 때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 “타자는 우리로부터 앗아간 (우리가 그것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대상-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대상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 위협을 제기한다.” 즐기라는 초자아의 명령에 즐기지 못해 괴로운 나는 즐기고 있는 것 같은 타자들을 증오하게 된다. 그래서 정신분석은 “죄의 ‘병적’ 향유를 설명해주는 초자아적 비난의 함정을 피하는 어떤 관계의 가능성을 정식화하는 것”이자 실재를 직접 향락할 수 있다는 광신을 피하게 한다. (대타자결핍)

정신분석적 치료의 궁극적 목적은 주체가 자신의 존재의 일관성을 보증하는 그 궁극적 ‘열정적 애착’을 취소하고 그리하여 리캉이 ‘주체적 궁핍’이라 부르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다.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근본적 환상의 장면에 대한 원초적 ‘열정적 애착’은 ‘변증화’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오로지 횡단될 수만 있다.

### ♡4 보편성과 주체성

지젝에게 정치는 보편성을 사유하여 전 사회 공간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정치는 사회의 불가능성을 표상하는 텅 빈 기표의 내용을 위한 투쟁이다.” 민주주의나 자유는 그 자체론 아무 내용이 없는 말들이다. “정치의 공간은 일련의 ‘평범한’ 기표물(S2)과 텅 빈 주인기표(S1) 사이의 틈새”로서, 특정한 의미를 그 공간에 새겨 넣으려는 투쟁이 정치이다.

인권을 예로 들면 인권이란 개념을 이루는 내용은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투쟁과 경쟁 속에서 “사후적으로 인권이라는 개념 그 자체를 재정의한다.”

지젝은 공정한 “중립성은 결코 없다”고 목소리 높인다. 모든 이의 보편성을 주장하면서 변화를 꾀해야 좌파라고 주장한다. 우파가 종교나 애국 같은 특수한 정체성을 통해 법을 무시하고 무효로 만들어 왔다면, 좌파는 참된 보편성을 위해 현행법을 중지한다는 것이다. 우파는 각자 본분에 맞게, 주어진 위치에 따라 살라고 외친다면 좌파는 기존 질서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 질서의 증상을, 즉 기존의 보편적 질서에 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서 안에서 어떠한 ‘제자리’도 갖지 못하는 부분(예컨대 우리 사회의 불법 이주자들과 노숙자들)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를 “증상과의 동일화”이다. 좌파는 보편성을 위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 예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예수가 있고, 인류 전체의 구원을 목표로 삼은 마르크스 등등이 있다. 그때 주체가 된다.

주체란 딱딱하게 고정된 현실 질서를 침해하고 교란시키는 우연성이자 어떤 걸 하고 마는 “행위”이자 “결단”이다. 이 세계와 관계 속에서 나는 정해지지 않은 “틈새, 열림, 공백”이다.

**‘주체성’은 이 환원불가능한 순환성에 대한 이름이며, 외부의 저항하는 힘(예컨대 주어진 질서적 질서의 관성)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내속적인, 궁극적으로 바로 주체 그 자신인 장애물과 싸우는 원능에 대한 이름이다. 다시 말해서, 틈새를 메우려는 주체의 바로 그 노력은 사후적으로 이 틈새를 지탱하며 생성한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그 의미가 주어진다. 저지르고 나서야 그때 상황이 이해가 된다. 믿음을 예로 들면, 우리가 믿기로 결단을 내린 이후에야 그것들은 신빙성 있게 지각된다. “우리는 결단에 앞선 ‘순수한’ 맥락에 결코 다다를 수 없다. 모든 맥락은 ‘언제나-이미’ 어떤 결단에 의해 사후적으로 구성된다”.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배제해야만 결단이 이뤄진다. 세상을 바꾸고자 큰 뜻을 결단하고 행위하는 건 오만이 아니다. “진짜로 불손한 것은 거짓 겸손을 떠는 것이다.” 세상의 질서란 건 우리가 구성한 것이고 미리 확정된 게 아닌데, 마치 질서가 본래 있는 것처럼 믿으며 인간의 겸손을 떠드는 것이야말로 오만이다.

이미 주어진 체계와 질서 안에서는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는다. 인간은 숭고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기존에 믿고 있던 “인과관계 사슬의 근본적 파열”이 일어날 때이다. 자유의 시간이 도래하고자 이전과 달리 내가 행위할 때, 숭고가 발생한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더 나은 판단에 거슬러서’ 손익대차대조표를 무시하면서 ‘자유를 감행할’ 때, 바로 그 순간, 말 그대로 ‘정황들’로는 ‘설명될’ 수 없는 무언가가 기적으로 ‘가능해진다.’” 기존의 질서와 우리를 지배하던 “상징적 인과성의 연결망”이 잠깐이라도 중지될 때 숭고의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은 우리가 가진 무한성을 상기시켜준다. 인간은 본디 약하거나 약하지 않다. 자기 안에 너무나 강한 힘이 두려워할 때 우린 약해지고 악이 발생한다.

행위들은 전적으로 예측불가능한 특체로서, 우리 삶을 흘뜨려놓는 기적적 사건으로서 발생한다. 이를 다소 정념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신성한 차원은 우리 삶에 현존하는 것이며 윤리적 배반의 상이한 양태들은 바로 행위-사건을 배반하는 상이한 방식들에 관계하는 것이다. 악의 진정한 원천은 신처럼 행위하는 유한한 인간이 아니라 신성한 기적이 발생한다는 것을 부인하고 스스로를 또 하나의 유한한 존재로 환원시키는 인간이다.